

淸州地域 佛敎文學의 位相

김미선*

< 目 次 >

- | | |
|-------------------|------------------------|
| I. 서론 | III. 청주지역 사찰 공간 인식 제형시 |
| II. 청주지역 불교문학의 배경 | IV. 맺음말 |

< 국문 초록 >

본 발표는 청주지역 불교문학의 위상을 다루었다. 그간의 다양한 지역학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충북 청주에 대한 지역 불교문학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청주는 내륙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풍명월이 의미하는 선비의 고장으로 인식 되어져 왔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두드러진 특징은 청주의 진산으로 알려진 牛巖山과 청주 시내를 가로 흐르는 無心川이 있다. 이에 청주는 二樂樂을 즐길만한 자연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 우암산과 무심천을 중심으로 儒佛의 지역문화가 꽃피워져 왔다. 불교의 문화로 『直指』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이 간행된 곳이 청주지역이다. 『直指』는 청주 興德寺에서 1377년 7월에 간행한 것으로 백운화상(1299~1375)이 75세였던 1372년에 祖師禪風의 法脈을 계승하게 하고자 저술한 것으로서, 비구니 묘덕의 시주를 받아 인쇄한 것이다. 청주의 불교문화 『직지』가 오늘날에 이르러 발굴되어 2001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위상을 세계적으로 더욱 확고하게 지리 잡고 있으니 청주지역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문화의 위상의 중요한 일면이다. 또한 청주지역의 인쇄술 발달은 淸州

*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hawoodang@hanmail.net

本『新刊大字明心寶鑑』을 최초로 印刊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청주지역의 유불문화의 정신을 형성시킨 요인이 되었다 하겠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청주지역 불교 문화가 꽃피운 불교문학 위상에 접근해 가고자 하였다. 먼저 『직지』와 같은 불교 문화가 자리하기까지의 청주지역 불교사상 및 불교문학의 수용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지』의 내용 요체라 할 수 있는 無心思想은 청주지역에서 어떻게 숨 쉬어 왔나 그 위상을 찾아 이를 통해 청주의 지역 사찰에서 無心の 사유를 통해 남겨진 사찰 공간인식의 제영시를 고찰함으로써 그 위상을 자리매김하여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淸州, 直指, 無心, 興德寺, 白雲和尚

I. 서론

본 논고는 청주지역 불교문학의 위상을 다루기로 한다. 그간의 다양한 지역학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충북 청주에 대한 지역 불교문학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청주는 내륙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풍명월이 의미하는 선비의 고장으로 인식 되어져 왔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두드러진 특징은 청주의 진산으로 알려진 牛巖山과 청주 시내를 가로 흐르는 無心川이 있다. 이에 청주는 二樂樂을 즐길만한 자연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 우암산과 무심천을 중심으로 儒佛의 지역문화가 꽃피워져 왔다. 이러한 청주의 유불 문화의 간과할 수 없는 유적을 들여본다면, 우선 유교의 문화에서 조선시대 서당의 기초교재였던 淸州本 『新刊大字明心寶鑑』을 淸州牧에서 최초로 印刊 하였다는 것이다. 1454년 충청도 관찰사 민건, 청주목사 황보공, 청주목 판관 구인문, 청주 유학교수관 유득화 등이 목판으로 간행했다. 조선시대 인성교육 교재로 알려진 『明心寶鑑』이 청주에서 최초로 간행 되어졌다는 것은 청주라는 지역이 전통적으로 교육의 도시 선비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되어진 것에 그 뒷받침이 될 만한 단서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또한 불교의 문화로 『直指』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이 간행된 곳이 청주지역이다. 『直指』는 청주 興德寺에서 1377년 7월에 간행한 것으로 백운화상(1299~1375)이 75세였던 1372년에 祖師禪風의 法脈을 계승하게 하고자 저술한 것으로서, 비구니 묘덕의 시주를 받아 인쇄한 것이다. 청주의 불교문화 『직지』가 오늘날에 이르러 발굴되어 2001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위상을 세계적으로 더욱 확고하게 지리 잡고 있으니 청주지역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문화의 위상의 중요한 일면이다. 또한 청주지역의 인쇄술 발달은 淸州本 『新刊大字明心寶鑑』을 최초로 印刷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청주지역의 유불문화의 정신을 형성시킨 요인이 되었다 하겠다.

그러나 그간의 지역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직지』에 대한 연구는 고인쇄술 활자에 관한 서지적 측면의 연구가 거의였고 『직지』의 내용 연구는 아직 그 위상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라 하겠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청주지역 불교 문화가 꽃피운 불교문학 위상에 접근해 가고자 함을 연구목적에 두기로 한다. 먼저 『직지』와 같은 불교 문화가 자리하기까지의 청주지역 불교사상 및 불교문학의 수용과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지』의 내용 요체라 할 수 있는 무심사상은 청주지역에서 어떻게 숨 쉬어 왔나 그 위상을 찾아 이를 통해 청주의 지역 사찰에서 無心の 사유를 통해 남겨진 사찰 공간인식의 제영시를 고찰함으로써 그 위상을 자리매김하여 보고자 한다.

Ⅱ. 청주지역 불교문학의 배경

『신증동국여지승람』 「忠淸道」에 기록된 淸州牧의 사찰로는 空林寺가 俗離山에 있으며, 應天寺와 桐林寺, 松泉寺는 모두 龍子山에 있는데, 李穡이 지은 「懶翁眞堂記」가 있으며 大歎喜寺 菩薩寺 化林寺 靈泉寺는 모두 洛迦山에 있다¹⁾고 하였다. 청주지역에 이러한 사찰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자면

승려의 수행이 이루어졌다는 배경이 되어진다. 이는 불교의 범맥이 형성 되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러한 사찰을 배경하여 남아있는 불교문화 재(2)를 통해서도 청주지역 불교 사상을 고찰할 수 있다.

이에 청주지역 불교문화 형성의 배경으로 청주에 불교가 유입된 과정 및 불교 문화 형성에 대해 고찰하기로 하겠다. 청주지역은 삼국의 불교 유물 유적이 융복합적으로 남아 있어서 이것으로 꽃피운 불교문화를 짐작 할 수 있고, 청주에 불교가 처음 언제 유입 되었는지의 문헌상의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명확하지는 않지만 청주의 지리적 위치와 현재 남아있는 불교 유물 유적을 배경으로 시기를 대략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청주지역은 지리적 요인으로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삼국의 세력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곳이다. 이것이 청주문화 형성의 배경이 되었으며 불교 문화 또한 이와 맥을 함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군사상 요충지라는 지리적 요건으로 청주지역은 삼국의 각축장이 되어 이후 5세기 후반에는 신라가 청주 부근까지 진출하고 6세기 중반에는 신라의 영역이 된다. 676년(문무왕 16)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며 청주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에 따라 5소경 중 하나인 서원소경을 두었고, 경덕왕대에 이르러 서원경이 승격되어 정치·경제·문화·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청주지역의 불교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과 함께 전개 발전해왔다. 현재 청주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은 한 보살사³⁾로 알려져 있다. 보살사는 567년 법주사를 창건한 義信(義師)에 의해 창건 되었다. 그런데 2014년 청주

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5, 「忠清道」.

2) 청주 지역 교문화재로 운천동신라사적비(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4호)·용암동 보살사의 청주보살사극락보전(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6호)·청주보살사5층석탑(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5호)·청주보살사석조이존병립여래좌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호)·청주보살사괘불(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8호), 정하동의 마에비로자나불좌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3호), 우암동 용암사의 비로자나불좌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호)·남문로2가동의 용두사지철당간(국보 제41호)·사직동의 청주용화사석불상군(보물 제985호)·질존미륵불(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호), 운천동의 청주홍덕사지(사적 제315호), 정동의 순치명석불입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0호), 모충동의 청화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이 있고,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었다.

3) 보살사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낙가산 기슭에 자리함.

시가 청원군과 통합되면서 청원군 문의면 지역에 있는 현암사가 407년(백제 전지왕 3) 고구려 승려 선경이 창건했다는 구전설이 드러났다. 이것이 고증 된다면 청주지역의 불교 전래는 기존의 시기보다 160년이나 더 빠르게 유입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암사와 관련하여 전하는 창건 시기는 문헌상의 기록이나 증거를 해 볼 수 있는 유적 유물이 없어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보살사와 함께 청주지역의 불교 유입 시기를 고증해 볼 수 있는 비중리 석조삼존불좌상⁴⁾ 문화재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一光三尊佛⁵⁾이다. 이는 돌을 다듬어 조성한 일광삼존불로 비중리 석불이 우리나라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된 배경이다. 이처럼 청주지역에는 1500년 전부터 불교가 유입되었다.

보살사에 이어 청주의 대표적 고찰로 안심사가 있다. 신라 혜공왕 11년(775년)에 眞表律師에 의해 처음 건립되었음을 다음에서 보면,

안심사는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法住寺 말사이다. 1982년 무렵까지 대웅전에 걸려 있었던 「安心寺古蹟年代表」에 따르면, 775년(혜공왕 11)에 眞表律師가 창건한 후 제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안심사'라 칭했다고 한다. 고려시대인 1325년(충숙왕 12)에 圓明國師가 중창했으며, 이후 임진왜란으로 큰 피해를 입어 인조 4년(1626)에 松庵大師가 이후 계속된 불사가 이어졌다. 1979년 대웅전 해체 수리공사 시에 발견된 「忠淸左道淸州南嶺九龍山安心寺重修記」와 「안심사고적연대표」, 대웅전 암막새기와에 새겨진 銘文등에 따르면 다음 표와 같이 1816년 중수와 중창을 거듭하다가 1816년에 현재와 같은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⁶⁾

-
- 4) 비중리 석불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터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
 5) 一光三尊佛 : 하나의 광배에 세 분의 불보살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삼국시대에 유행했던 양식. 이 지역은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절터였음이 밝혀졌다. 이 불상은 발견된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6세기 전반기는 고구려가 점령하였으며, 후반기는 신라의 영토였기 때문에 국적을 판별할 수 없다. 그러나 불상의 형식이나 양식상으로 볼 때 6세기 중엽 내지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2017년에 보물로 지정이 되어 졌고, 필자는 지역사회에서 보물로 지정되기 이전 문화재로 관리 되지 못하고 소홀하게 방치되어 있던 오랜 시간을 보아 왔다.
 6)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2014).

라고 하였다. 진표율사는 선운사 금산사 미륵사 등 여러 지역에 사찰을 창건하며 내세의 부처가 출현할 이상세계에 대한 彌勒思想을 전파하였다. 불가에서 미륵불은 석가모니불이 구제할 수 없었던 중생들을 남김없이 구제한다는 대승적 자비사상을 근거로 출현하였다. 이러한 대승적 자비사상을 행한 진표율사가 청주지역에 사찰을 창건하고 이름을 安心寺라 하였으니, 이곳 청주도 또한 미륵신앙의 요람지인 龍華三會說法道場으로 心安을 열어주는 淸淨佛身의 淨土安樂地의 터전이라 하겠다. 이러한 진표율사의 대승적 자비사상을 이어 眞覺國師 慧謙(1178~1234)의 자취가 청주지역 불교사에 수용되었음을 『曹溪眞覺國寺語錄』에서 볼 수 있다.

4월에 西原府의 思惱寺에서 하안거에 즈음하여 법좌에 올라앉아 말했다. 안거 3개월인 90일 동안 온갖 요망하고 괴기한 생각들을 짓눌러 버려라. 만일 찌꺼기가 눈동자에 붙지 않았다면 어찌 허공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겠는가. 그런 까닭에 '마구 날뛰는 어리석은 마음이 그친 상태가 바로 깨달음이다.'라고 하였으니, 모든 지혜가 통하여 장애가 없을 것이다라 하고 주장자를 높이 세웠다.7)

에서 볼 수 있듯이 西原府라는 명칭으로 혜심이 서원부의 思惱寺⁸⁾에서 하안거를 보냈음을 고증할 수 있다. 이 지역은 1982년 3월에 운천동 499번지에서 垂拱 2年(686)에 조성된 新羅寺蹟碑(지방문화재 134호)가 발견되어 일

7) 慧謙, 『曹溪眞覺國寺語錄』

8) 사녀사지는 흥덕구 무심서로 565번지에 있는 고려시대 절터이다. 이 사지가 알려지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1993년 10월이다. 사직동 용화사 인근 무심천 제방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진신주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다량의 금속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때 발견된 유물을 사찰에서 실제로 의식이나 공양구로 사용된 불교 공예품과 생활용품으로 400여점이나 되었다. 유물들을 용도별·종류별로 살펴보면 의식구와 공양구, 장엄구와 생활용구로 나누어진다.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의식구에는 범종·반자·경자·금강령이 있고, 가장 많은 수가 발견된 공양구에는 향로·수병·광구병·주전자·청동대호·촛대·초두·잔탁·발우·청동합·청동접시·굽접시·청동소호·수반·청동대접·청동발이 있고, 장엄구에는 금동광배 조각·자물쇠·풍탁이 있고, 생활용구로는 청동 손가락·국자·시루·철제 향아리·철제 가마솥·맷돌 등이 발견되었다. 사녀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다양한 종류와 용도를 지닌 유물에 한꺼번에 출토됨으로써 고려 전반에 걸친 금속공예의 발달상이나 그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청주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의 고려불교 문화와 금속공예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적부터 불교 문화가 꽃피었음이 입증되었다. 그 후 興德寺址를 발굴하여 불교와 함께 인쇄문화의 성지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고, 1993년 10월에는 사직동 용화사 옆 제방에서 400여점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청동유물이 발견되어, 이곳이 知訥에 이은 曹溪宗의 2祖 眞覺國師가 夏安居를 지냈다는 思惱寺址⁹⁾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서원부는 고려시대 청주의 공식 행정지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교 유물을 중심으로 자주 발견되고 있다. 진각국사는 고려 중기의 고승으로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을 이어 修禪社를 통해 불교 정화에 힘썼다. 혜심은 특히 不立文字의 禪思想을 不離文字로 남긴 韓國禪詩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진각혜심의 「蓮池注泉」에서 수선사의 불교 정화 사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세상을 정화 시키는 雨花의 찬탄이다

金沙地面開淸沼 깨끗한 모래 위로 맑은 못이 열렸으니
 碧玉竿頭掛落泉 벽옥의 대나무 통에 샘물 걸어 놓았네
 玫瑰明珠瀉荷葉 옥 같은 맑은 구슬 연잎 위로 쏟아져
 相看雨下不雲天 구름 없는 하늘서 오는 꽃비로 보이네.

「蓮池注泉」¹⁰⁾

작품 속 蓮池는 혜심에게 有形 無形의 수행공간인 것이다. 起句에서 깨끗한 모래 위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 비친다는 것으로 혜심은 물속의 하늘을 알아차리기 위한 것이겠는가? 바로 照廟脚¹¹⁾의 자기를 관

9) 사너사는 지금의 용화사지로 1992년 국립청주박물관이 옛 절터인 이곳 부근에서 발굴한 청동 반자의 명문 판독 결과 고려 후기에 큰 사찰이었던 思惱寺라고 밝혔다.

10) 謙謙 『無衣子詩集』

11) 照廟脚下 : 선가에서는 '조고각하'라고 하여 선방의 고무신 벗는 섬돌에 많이 써 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발을 바르게 벗어라' 또는 '머리를 돌려 발 뒷꿈치 아래를 바라 보라' 라는 이 단순한 말 속에는 불교 수행의 기본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수행의 觀法은 자신의 행동 혹은 생각 등을 관찰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바로 '조고각하', 즉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살펴 수행하는 것이다. 불가 수행의 관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을 관하던 자신의 그 순간의 識 또는 행위를 통해 참 나를 찾는 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바로 '조고각하'라는 말 속에 들어 있다.

조하는 水想觀法¹²⁾을 함을 알 수 있다. 물을 정토의 대지로 관하며 承句에서 연지에 대나무 쪽을 걸쳐놓고 물길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을 핵심은 대나무 통 끝에 샘물을 걸어 두었다고 하였으니 思量分別을 떠난 禪師만의 선어이다. 지금도 순천 선암사 三印¹³⁾塘의 연지에는 핵심의 선어 속 그림이 그대로 들어 있다. 시의 후반부에서 옥 같은 맑은 구슬이 연닐 위로 쏟아지는 것이 마치 맑은 하늘서 꽃비가 오는 듯하다는 실상을 설하였다. 이는 선사가 禪悅의 淡淡함을 法의 雨花에 비유하여 두었음을 읽게 된다. 서원부 사뇌사에서 하얀겨를 지내며 '마구 날뛰는 어리석은 마음이 그친 상태가 바로 깨달음이다.'¹⁴⁾라는 悟道의 경지를 안거의 법좌에서 설하였으니, 서원부 思惱寺 법당에 모인 사부대중에 핵심의 法喜禪悅 가피가 雨花로 포교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진각국사 핵심의 선사상을 이어 백운경한(1299~1374)선사가 수용 계승하였다. 고려의 백운 경한선사는 無心禪을 받아들여 그 시대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선승이며 시대를 통시하는 선각자였다. 백운 선사는 54세 때, 壬辰年(1352) 正月 上旬에 石屋禪師¹⁵⁾를 參參했다. 스승 곁에서 正月 十三日에 無心無念의 眞宗에 密密하게 契合하고 禪床에서 내려와서 스승께 三拜를 올리고 말하길,

“나의 마음이 환희합니다. 석옥 선사가 물었다. 무슨 도리를 얻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환희하는가? 백운 선사가 대답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환희하는 줄 알았습니다. 석옥 선사는 깨달음을 부촉해서 말했다. 내가

12) 水想觀 : 맑은 물을 보고 물을 변화시켜 유리와 같은 정도의 대지를 관함.

13) 三印 : 諸行無常印·諸法無我印·涅槃寂靜印, 불교의 중심 사상 중 하나.

14) 慧謚, 『曹溪眞覺國寺語錄』.

15) 中國의 湖州 震霧山 天湖庵으로 가서 臨濟宗의 正脈을 계승한 石屋清珙 禪師. 처음 석옥 선사를 만난 자리에서 세 가지 語句를 드러내어 보이고 疑心을 決擇해 주기를 청했다. 첫째는 “六祖가 이르데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인자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어구에 대하여 決疑을 요청했다. 이에 석옥 선사는 “眞心은 不動”이라고 의심을 해결해 주었다. 둘째는 「金剛經四句偈」와 「證道歌句節」과 「涅槃經四句偈」와 「法華經四句偈」와 「普賢行願品」의 偈頌을 列擧하고 決疑를 부탁했다. 이에 석옥 선사는 “相好에 執着하지 말라”고 의심을 해결해 주었다. 셋째는 “어떤 僧이 趙州에게 묻데, 개도 또한 佛性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趙州가 없다”고 대답했는데, 그 결의를 요청했다. 석옥 선사는 “默決”로써 疑心을 해결해 주었다.

너의 기쁨을 함께하리라. 너의 마음이 기쁘니 내 마음도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쁘니 十方諸佛과 菩薩도 세 번 기뻐할 일이다.”¹⁶⁾

라고 하였다. 이로써 백운 선사는 無心 無相의 眞宗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백운은 太古 普愚(1301~1382) · 懶翁 惠勤(1320~1376)선사와 더불어 麗末三師¹⁷⁾ 혹은 麗末三和尚¹⁸⁾으로 불리우며 수행을 하였다. 이 세 명의 선사는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며 수행 속에서 禪詩를 통해 교류를 하였다. 『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을 저술하고 청주 흥덕사에서 최초로 印刊한 백운경한의 「居山·其二十五」를 본다.

天生石獅子 하늘이 돌사자를 만들었는데
背上松風聲 등 위의 소나무가 바람소리를 내네
好箇西來意 이 소리가 바로 달마 조사의 뜻이니
諸禪子細聽 모든 참선자는 잘 들어 보아라.

「居山·其二十五」¹⁹⁾

라고 하였다. 작품에 다음의 주석이 있다.

“오른쪽 一頰은 成佛庵에서 지은 것이다. 남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형상이 사자와 같다. 등에는 큰 소나무가 성장하고 있어서 이 계송을 짓고 그 바위에 써 놓았다.”²⁰⁾

라고 하였다. 이 작품을 성불사에서 지었다고 하였는데 「直指後記」²¹⁾에 보면, 백운선사는 『直指』를 성불산에서 썼다고 했다. 이 계송을 지은 성불암은 성불산에 있으며 직지를 저술한 장소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 속에

16) 『韓佛全』 卷6, 『語錄』, 657면. “心大歡喜 師即囑問 得何道理 汝心歡喜 我又答曰 知他如何 心自歡喜 師即囑曰 吾助汝喜 汝心歡喜 吾亦歡喜 吾亦歡喜 十方諸佛菩薩 歡喜歡喜歡喜”

17) 김방룡(2005).

18) 황인규(2004).

19) 『韓佛全』 卷6, 『語錄』, 661면.

20) 『韓佛全』 卷6, 『語錄』, 661면, “右一頰 在成佛庵作 南山有大石 形如獅子 背上大松 故作此偈 書其石”

21) 백운경한, 「直指後記」(木版本上卷).

담겨 있는 이치를 깨달으면 곧 法性을 깨닫는 것이고 범성을 깨달으면 自性을 깨달아서 달마 조사가 전한 西來意와 슴—이 될 수 있다는 物我一如의 백운경한의 무심사상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을 저술한 사상적 배경이 되며 청주지역 불교사상으로 녹아져 있다 하겠다.

또한 청주지역의 불교사상 범맥으로 懶翁惠勤 선사를 목은 이색의 「淸州龍子山松泉寺懶翁眞堂記」에서 볼 수 있다.

懶翁의 진영을 모신 곳은 명산과 福地가 모두 있다. 韓山 牧隱子가 붓을 잡고 그 始末을 기록한 지가 오래 되었다. 지금 그 무리인 覺連이 또 와서 말하기를, “淸州 龍子山에 돌미륵과 석탑이 있는데 실로 福地입니다. 이어서 읍을 마을에 달려가서 청신사 청신녀들을 뵙고 재물을 약간 얻어 모아서 방 세 칸을 지었습니다. 무술년 8월에 준공하고 懶翁의 초상을 그 가운데 방에 걸고, 승려들은 그 좌우의 방에 살았습니다. 아침저녁으로 香火를 받들었으니 그것은 스승의 은공에 보답하고자 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청컨대 선생님께서는 記文을 써주십시오. 기문을 누가 쓰지 못하겠습니까마는 나옹의 眞堂에 기문을 쓰는 것은 선생님의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나옹의 탑에 왕명을 받들어 銘을 쓰는데, 나옹의 진당에는 그의 제자를 위하여 기문을 쓰게 되었는데 나는 나옹과는 아득히 멀리 서로 간섭을 하지 않았으니, 내가 나옹의 문하에 노닐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나 나옹의 진당이 나로 말미암아 영구히 전해져서 뒷사람들로 하여금 나옹의 이름을 알게 한다면, 실로 나의 붓에 힘입은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평소에 직접 그의 교화를 받았으면서 그가 죽은 뒤에 보탬이 없는 자들과 어찌 같은 날에 견주어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나의 다행인가? 나옹의 다행인가? 아니면 제자 각연의 다행인가? 因緣으로 만났으니 한번 웃음거리에 뿐이다.” 라고 하였다.²²⁾

22) 『東文選』卷76, 「淸州龍子山松泉寺懶翁眞堂記」. “懶翁眞堂. 名山福地皆有焉. 韓山牧隱子. 秉筆紀始末久矣. 今其徒覺連. 又來曰. 淸州龍子. 有石彌勒石塔存. 實福地也. 連走于邑居鄉社. 謁淸信男女. 得財若干. 作屋三間. 戊戌八月. 畢功. 垂我懶翁眞于其中. 僧居左右偏. 所以朝夕香火. 報彌而恩也. 請先生記之. 記誰不能爲. 記眞堂. 先生事也. 子曰. 翁之塔. 奉教銘. 翁之眞堂. 爲其徒記. 吾於翁則漠然不相攝. 以吾不及游翁之門也. 然翁眞堂. 由我而傳于久. 使後之人知翁名. 實賴我筆. 則與平昔親炙. 而無所補益於身後者. 豈可同日語. 吾之幸也歟. 翁之幸也歟. 抑又連之幸也歟. 因緣會遇. 當付之一笑耳”

라고 하였다. 나옹혜근의 「청산가」 「토굴가」를 통하여 그의 불교문학의 경지를 고찰할 수가 있으며, 청주 용자산 송천사에 나옹혜근의 선사상이 수용 되었음을 밝혀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청주지역 불교문학 형성의 배경으로 청주에 불교가 유입된 과정 및 불교 문화 및 불교문학 형성에 배겨에 대해 고찰하였다. 청주에 불교가 처음 언제 처음 유입 되었는지의 문헌상의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청주는 삼국시대의 군사적 요충지로 삼국의 문화가 형성 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 및 사상이 형성되었고, 그에 따른 청주지역 사찰에서 주석하며 남겨진 불교문학의 법맥을 고찰할 수 있었다. 청주는 미륵신앙의 요람지인 龍華三會說法道場으로 心安을 열어주는 淸淨佛身의 淨土安樂地의 터전으로 진표율사의 대승적 자비사상을 이어 우리나라 불교문학의 분수령을 이룬 眞覺國師 慧謙의 자취가 청주지역 불교사에 수용되었음을 확인하고 혜심이 청주지역 사찰에 안거를 지내며 남긴 불교문학의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어 중국 석옥 선사의 임제정맥을 계승하고 무심선을 본받아 수행한 백운이 흥『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을 저술하고 청주 흥덕사에서 최초로 印刊하는 法緣의 자취를 남기었고, 物我一如의 백운경한 무심사상은 懶翁惠勤 선사와의 교유를 선시로 꽃피워 낸 一脈을 짚어 볼 수 있었다.

Ⅲ. 청주지역 사찰 공간인식 제영시

청주지역 불교문학의 배경을 통하여 고찰하였듯이 세계 최고의 고인쇄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청주지역에 불교 문화를 배경 하였기 때문임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청주지역 불교문화에 자리 잡은 禪師로는 신라 때 진표율사 고려 진각국사 혜심, 백운경한 나옹혜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교 문화를 꽃피워 낸 청주지역 사찰을 찾아 남긴 제

영시를 살펴 본다. 먼저, 鄭樞²³⁾의 「懶翁在淸州菩薩寺 兒子趁往謁 翁手寫雲山圖贈之 拯以示予 卽題一絕」이다.

明窓點筆寫雲山 밝은 창에서 붓을 적시어 구름 산을 그리니
料得禪翁意頗閑 선사의 뜻이 자못 한가로움을 헤아리겠네
要識畫中離相處 중요로히 그림 속에 서로 떠난 곳 기록하자니
層巒古刹白雲間 겹겹의 산속 오래된 절 흰 구름 사이였다네

「懶翁在淸州菩薩寺 兒子趁往謁. 翁手寫雲山圖贈之. 拯以示予. 卽題一絕」²⁴⁾

이 작품을 통하여 나옹혜근이 청주 보살사에서 주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보살사는 청주시 남동쪽의 낙가산 중턱에 자리 잡고있는 보살사는 청주시 근교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다. 567년(위덕왕 14)에 범주사를 창건한 의신이 창건하였다. 778년(혜공왕 14)에 진표의 제자 용종이 중창했고, 918년(태조 1)에 고려 태조의 5번째 아들이자 당대의 고승이었던 증통이 3번째 중창을 했으며, 1107년(예종 2)에 자정이 다시 중창했다. 1458년(세조 4)에는 세조의 명으로 중수했으며, 1626년(인조 4)에 벽암 覺性의 제자 경특이 중수하고, 1683년(숙종 9)에 일륜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나옹화상이 보살사에 주석하며 붓으로 雲山圖를 그리는 모습을 작자가 보면서 仙翁의 한가한 禪趣를 술회하였다. 나옹선사의 畫禪一如의 목향이 오늘날 보살사에 남아 있다면 바로 이 지역의 白雲 같은 禪趣樂일 것이다. 다음은 우암 송시열의 「至空林」이다.

空林禪釋號 公림은 선가의 칭호인데
我輩此中行 우리들이 이곳에 찾아왔다네

23) 鄭樞(1333~1382) : 1353년(공민왕 2) 문과에 급제하였고 예문관 검열을 거쳐 좌사의대부에 올랐다. 1366년(공민왕 15) 이존오(李存吾)와 함께 신론(辛岫)을 탄핵하다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이색의 구원으로 동래 현령으로 좌천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성품을 공검하고 근후하여 관직에 있을 때 항상 정도를 행하였다

24) 鄭樞, 『圓齋先生文稿』

威儀伯子說 위이는 백자의 말이어
 須向晦翁評 모름지기 회옹 향해 평하네
 「至空林」²⁵⁾

우암이 空林寺를 제영한 작품은 여러 작품이 남아 있다. 마침 공림사에 이르니 스님들이 공양하는 중이었다. 일행의 사우 가운데 明道의 三代威儀에 대한 설을 외는 자가 있었다. 우암은 이 설을 이해함에 있어 터럭만 큼만 어긋나도 폐단이 있으므로 주자가 폐단을 구제하는 말을 한 것을 사우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고 여겨 이 시를 지어 일깨웠다.²⁶⁾고 하였다. 우암이 공림사에 遊行하며 儒佛을 향유 하였음을 보여준다. 明道의 三代威儀는 夏·殷·周 세 나라의 훌륭한 문화를 뜻하는데 明道가 스님들이 공양하는 것을 보고 공평하다는 뜻에서 "삼대 위이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말한 것은 때마침 보살사 스님들이 공양하는 모습을 보며 술회하였다. 주자가 폐단을 구제하는 말을 한 것을 사우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고 여겼으므로 이 시를 지어 밝힌 것이다. 우암 송시열의 「空林寺中詠懷」이다.

洞裏烟霞鎖欲開	골짜 속의 연하는 개이려고 하는데
夜深星斗暫徘徊	밤 깊어져 북두성은 잠시 배회하네
想得潭溪秋月白	시냇물에 가을 달빛 밝음 생각하니
此生何日溯洄來	이생 언제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空林寺中詠懷」²⁷⁾

공림사에서 한가한 산중의 정취를 느끼며 시냇가 가을 달빛을 바라보자니 이생에 언제 다시 공림사에 올 수 있을까? 하며 月印千江속 眞空妙有의 禪의 경지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 다음은 「華陽山寺 吟示諸君」

25) 『宋子大全』 卷2.

26) 『宋子大全』 卷2. “至空林。適值僧徒供養。行中士友。有誦明道三代威儀說。余以爲此說理會毫差。則有弊。故晦翁有救弊語。士友不可不知。故聊作此以諷焉”

27) 『宋子大全』 卷2.

夏夜山深猶杜鵑	여름밤 산은 깊은데 오히려 두견은 울고
仰思衾薄未成眠	우리러 생각자니 얇은 이불에 잠 못 이뤘네
如何明睿生知近	어찌하여 명예가 생지에 가까울까?
却困其然所以然	도리어 기연과 소이연에 곤혹스럽네.

「華陽山寺 吟示諸君」²⁸⁾

우암의 「次後雲翁煥章菴七十一韻」에서 말한 환장암이 바로 華陽山寺 이다. 煥章菴에는 명나라 신종이 쓰던 붓이 보관되어 있다는 곳이다. 이 내용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成海應의 『研經齋全集』 「華陽洞記」에 “신종황제가 쓰던 금 붓이 환장암 속에 있다.[神宗皇帝御用金管一柄在菴中.]”라는 구절이 있다. 화양동에 숙종 때의 문인 閔鼎重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가져왔다는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의 어필 ‘非禮不動’을 송시열에게 주었고, 송시열은 이것을 화양동의 석벽에 새긴 뒤 그 원본은 煥章庵 옆에 雲漢閣을 지어 보관하고 승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고 한다.²⁹⁾ 송나라 소동파는 신종 원풍 7년에 황제의 명을 받아 黃州를 떠나 새 임지인 汝州로 가는 길에 여산 동림의 흥룡사에 들러 常聰照覺 禪師를 만나 밤새 법 거랑을 하고는 깨달은 바가 있어 悟道를 한다. 이에 상충조각 선사와 밤새들은 물소리에서 팔만사천 법문을 들었다는 말을 하였다. 이렇듯 사찰은 사부대중에게 心眼을 열어 주는 淸淨佛을 모신 淨土安樂地의 공간이며, 사찰을 담고 있는 산수자연 또한 부처의 청정한 화현으로서 불교문학의 공간적 인식배경이 되어 왔다.³⁰⁾ 우암에게 화양동 환장암은 유불을 통한 공간인식으로 보여진다. 주자가 일찍이 山寺로 가다가 말 위에서 程子가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其然不然]’한 몇 조항을 사색하다 통하지 못한 채 절에 이르렀는데 두견새 울고 이불도 얇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사색하느라 매우 괴로웠었다. 그후 두견새 소리만 들리면 그날의 괴로웠던 일이 생각난다고 하였다.³¹⁾ 청주지

28) 『宋子大全』 卷2.

29) 『宋子大全』, 「附錄·年譜」.

30) 줄고(2018), 143면. 참조.

31) 『宋子大全』 卷2. “朱先生嘗向山寺。馬上思索程子其然不然數條。未透。至寺。鷓鴣啼。衾又薄不得

역의 사찰 공간에서 남겨진 여운들이다. 다음은 창암 박노중은 청주 龍華寺 앞을 가로지르는 「無心川」을 노래하였다.

一派源從文義來 한줄기 물 문의서부터 내려와
 無心名處唯心回 무심의 이름난 곳에 오직 마음이 돌아 오네.
 回如功字詵歌在 도는 모습 功字는 도선의 노래에 있으니
 麟閣丹青不 乏才 기린각의 단청색에 인재 끊이질 않네
 「無心川」³²⁾

무심천이 흐르는 용화사 인근에는 신라 때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터들이 산재해 있던 지역이다. 지금도 가까이에 흥덕사지·운천사지·사뇌사지 그리고 아직 조사되지 않은 절터들이 남아있는데, 용화사에는 이런 폐사지에 흩어져있던 석불로 보이는 장륙상칠존불이 모여져 있다. 용화사라는 사찰의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로부터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고 도솔천에서 천인들을 교화하고 있는 미륵보살이 56억 7천만년 후에 사바세계에 나타나 화림원 용화수 아래에서 성도하여 세 번의 설법으로 300억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에서 유래 했다. 이러한 용화사 앞을 무심히 흐르는 냇물은 『鄭鑑錄』 「三韓山林秘記」에 보면, 西原京은 물이 흘러 돌아 功字形象을 이루었으므로, 凌練閣에 肖像이 그려질 사람들이 代代로 나타날 것이다.³³⁾라고 하였다. 창암은 무심천에 흘러오는 것은 오직 마음 뿐이라 하였다. 무심천이 바라보이는 사뇌사에서 안거 수행 정진을 한 혜심은 우리가 사는 현상계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찾지 못하여 출가를 하였고, 출가하여 10년 수행을 한 이후에 문득 悟道를 한다.

…前略…

萬別千差事

천가지로 만가지로 다른 일들이란

眠。終夜思索甚苦。其後每聞鶉聲。則輒思當日苦索時云云”

32) 『滄菴集』.

33) 『鄭鑑錄』 「三韓山林秘記」. “西原京(淸州) 水環作功字 故圖凌烟者 代有之”

皆從妄想生	모두가 망상 따라서 생겨 난 것이니
若離此分別	만약 이 분별심서 벗어날 수 있다면
何物不齊平	어떤 사물에선 들 평등하지 않으랴?

「孤憤歌」³⁴⁾

혜심의 득도는 삼라만상의 천차만별은 다 그릇된 인식과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분별심 때문에 팔만사천번뇌가 일어나고 한 생각 돌이키니 無分別地로 眞如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을 出世間의 공간에서 깨달게 된 것이다. 이렇게 慧謚禪師에게는 世間과 出世間의 공간이 득도의 인식 공간 배경이 되어졌듯이 청주지역 중심을 관통하는 무심천의 명칭은 또한 청주 지역의 건고한 불교문화를 속 韓國佛教詩史에서 높이 자리 매김되어 있는 慧謚이 안거를 지낸 수행처였고, 無心의 수행을 통한 白雲禪師가 『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을 탄생 시킨 지역이 바로 청주이다. 이에 청주 중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의 무심은 그냥 흐르는 무심이 아닐 것이다. 청주 지역의 불교 사상과 불교문화를 꽃피운 산실이 되었다 하겠다.

IV. 맺음말

지금 지구촌 시대를 지속가능한 발전시대라고 한다.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19로 사회적 전반이 새롭게 디자인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의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지구환경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양적 팽창을 통해서 끈임없는 욕망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적은 것에 만족하며 삶을 향유 할 것인가? 그 답을 청주지역 불교문학의 위상을 고찰하며 無心の 선 사상에서 발견하여 보았다. 청주지역의 불교문화 역사는 無心禪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보며 인문 생태

34) 慧謚 『無衣子詩集』.

학적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면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요구하는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점이 청주지역 불교문학 위상 고찰의 핵심이라 하겠다.

청주지역에서 禪修行을 행한 혜심·백운·나옹선사들이 남긴 자취는 무심선을 통해 無明으로부터 佛性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청주지역에 淸淨無心의 맥을 갖게 한 근원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가능성이며, 인식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 하겠다.

본 청주지역의 불교문학 위상 고찰을 통해 이러한 청주지역의 본래 면목을 들여다보고 미륵 세상이 도래할 답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參考 文獻〉

『宋子大全』

『東鑑錄』

『滄菴集』

『金剛經』

『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曹溪眞覺國寺語錄』

『無衣子詩集』

『圓齋先生文稿』

『韓佛全』

김미선(2018), 「불교문학의 공간인식과 표현」, 『동방한문학』 제77집, 동방한문학회, 143~170면.

김방룡(2005), 「여말三師의 간화선사상과 그 성격」, 『보조사상』 제23집, 보조사상연구원, 179~225면.

김석태(2009), 「불가 사찰제영시의 문학적 지향」, 『고시가연구』 제23집, 55~82면.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2014), 『청원군 69년사』, 청원군.

황인규(2004), 「白雲景閑과 고려말 선종계」, 『한국선학』 제9호, 한국선학회, 215~264면.

Abstract

The Status of Buddhist Literature in Cheongju Area

Kim, Mi-seon^{*}

This presentation is the gist of the presentation on the status of Buddhist literature in Cheongju. Various region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but few studies of local Buddhist literature have been conducted on Cheongju, North Chungcheong Province. Cheongju has an inland characteristic and has been recognized as a Seonbi Pass, meaning Cheongpung Myeongwol.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se geographical conditions include 牛巖山, known as Jinsan of Cheongju, and which flows through downtown Cheongju.

In this presentation, it was intended to approach the status of Buddhist literature in Cheongju, where Buddhist culture blossomed. First, the process of accepting Buddhist ideas and Buddhist literature in Cheongju was considered until Buddhist culture such as "Jikji" was established. Based on this, the "Jikji" main body of the "Jikji" was to find out how it had been breathing in the Cheongju area and to examine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temple's spatial awareness left behind through the reasons of nothing in Cheongju, thereby establish its status.

【Key words】 Jikji, Cheongju, Buddhist, Buddhist literature, Temple

투고일 : 11월 20일, 심사완료일 : 12월 6일, 게재확정일 : 12월 22일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Cheongju University / hawoodang@hanmail.net

